

‘재일’ 아이덴티티와 일본연구

윤건차 (尹健次)

가나가와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재일조선인은 식민지배의 소산이며, 옛 중주국에 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채, 기본적 인권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들은 일본 국내에서 “무국적자” 내지 “제 3 국민” 같은 극히 피차별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재일조선인은 식민지시대에 태어난 1 세부터, 지금은 3, 4 세의 시대가 될 만큼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본인은 조선의 해방 직전에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전후 일본과 분단시대를 살아온 경계인이다. 말하자면 세 개의 국가의 틈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마이너리티이자 디아스포라인 셈이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공동체란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의 내 자신은 대체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 탐구로 많이 고민해왔다.

“아이덴티티” 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일조선인”이라는 범주를 고려하는 한, 변하지 않은 것 또한 있기 마련이다. 현재 일본에 약 45 만 명 정도의 “자이니치(在日)”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이미 3 세 혹은 4 세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3, 4 세의 아이덴티티의 존재 방식이 1 세와 많이 다르다고는 해도 “일본인”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이니치(在日)”가 일본 국적을 갖든 안 갖든 간에, 그들은 식민지 조선 그리고 분단조국과 끊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민족”이라든가 “민족의식”, “민족적 아이덴티티” 등의 정리된 언어로 표현해도 좋을지 어떨지는 민감한 문제다. 게다가 그것은, 일견 아무 상관도 없이 생을 영위해가는 한국 젊은이들의 아이덴티티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회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재일조선인은 일본과 조선에 의해 규정된 존재이며, 더욱이 일본과 조선의 근현대사는 포리의 관계에 있다. 조선과 일본의 근현대사를 이루고 있는 기둥을 본다면, 전자는 반봉건의 투쟁, 식민지 근대의 강요, (반식민지적)남북분단, 후자는 서구열강의 일본 침략, 천황제 국가의 창출, 아시아 침략이라는 각각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재일조선인으로서 말하자면, 지금 서술한 조선과 일본의 여섯 개의 기둥을 언제나 항상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자이니치(在日)”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자이니치성(在日性)”은 어디에 있는가? 본인은 그 핵심이 민족이라거나 국가, 조국이나 고향, 전통, 문화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출신” 내지 “내력(來歷)”의 자각이나 거기 구애됨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좋은 삶든 간에 재일조선인은 예전의 중주국이자 과거를 반성·사죄하지 않은 일본 땅에서, 식민지 조선과 남북분단을 질질 끌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로 그것을 자각해야만 “자이니치(在日)”는 강하게 살 수 있으며, 일본과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Q -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받아 온 차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멸시, 차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받아 온 차별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통치의 소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두 문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